

세월호 선조위 구성 완료...원점 재조사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 급선회 배정·복원성 등 최장 10개월간 조사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7일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최대 10개월간 공식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선조위는 조타기 과실과 급선회 배정, 복원성 문제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선조위 조사개시는 기존 단순 세월호 관련 기록물 복원 등과 달리 특별

법에 근거해 핵심현안인 사고 과실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월호 선조위는 지난 7일 서울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조위 조사 개시일을 의결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선조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4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김창준 선조위위원장은 "선조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최장 10개월 활동할 수 있는 시점이 기산되

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면서 "체재를 완료한 별정직 공무원 33명에게 10일 임명장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조위 예산도 기획재정부 내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주면 선조위가 인적, 물적 조직을 준비한 상태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조위는 이날 제1소위원회에서 올라온 3건에 대한 조사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날 통과된 조사 대상 안건은 ▲조타기와 조타 과실 여부 ▲급선회 항적 및 항

경사(배가 옆으로 누운 경사도) ▲세월호 복원성 등이다. 권영민 1소위원장은 "세월호가 인양됐기 때문에 (인양 전)재판에서 제기된 급선회와 관련한 각종 기계적 고장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직접 이상 및 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면서 "범위를 넓게 잡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선체조사 계획안과 함께 선체처리 용역계약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운 밤 운동으로 이열치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 지난 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야간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올해 수능도 EBS 연계율 70%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EBS 교재·강의와 연계율이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단,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0점 처리된다.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사프니스(흑색 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다양한 의견 청취...검찰시민위 확대

광주지검, 위원 53명→60명 여성위원 2배 늘려 27명

광주지검이 여성 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를 확대·개편했다. 검찰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등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 등도 시민위에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지검(검사장 김희재)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 5층 중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일반 시민 60명으로 확대 구성된 제7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도 열었다. 확대·개편된 제7기 시민위는 지역 사회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연령·성별·거주지 등을 고려했으며, 문화예술인

8명과 교육 5명, 종교인·지역업·학생 각각 4명, 시민사회단체·근로자 각각 3명, 주부·택시기사 각각 2명 등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위원수는 기존 53명(6기)에서 60명(최대 60명까지)으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위원의 수는 14명(6기)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1세이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신원은 비공개다. 한편 검찰시민위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시민위는 지난 2010년 검찰 개혁 방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시민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해질 19:49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해질 19:49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해질 19:49

오락가락 비
불쾌감이 높으므로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지역별 날씨 (℃)

광주	25/29	보	성남	24/26	보
목포	24/28	순	천안	24/28	보
여수	24/27	영	광주	25/29	보
나주	25/29	전	도곡	23/26	보
완주	25/29	전	주곡	25/29	보
구례	24/28	군	산남	25/28	보
강진	24/29	남	원곡	24/29	보
해남	24/29	흑	산도	22/26	보
장성	24/28	보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부	남~남서	1.0~2.5	남~남서	1.0~2.0	
남해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서부	남~남서	1.0~2.5	남~남서	1.5~2.5	
면해	남~남서	1.5~2.5	남~남서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21	03:06
	20:13	14:55
여수	03:48	09:37
	15:35	22:16

◇주간 날씨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날씨	☀	☀	☀	☀	☀	☀	☀
기온	24/33	25/31	24/32	24/33	25/32	25/32	25/32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내일까지 비...오늘밤 열대야

광주·전남 30~80mm

11일까지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밤 최고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은 9~10일까지 광주·전남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11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0일 광주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 알린 헌트리목사 광주서 추모예배

1980년 글·사진 세계 언론에 기고...1984년 美 추방 지난달 타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참상을 세계로 알린 고 헌트리(허철선) 목사 추모예배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고 커티스메모리얼에서 9일 열렸다. 이날 추모예배에서는 목사, 찬송, 기도, 찬양,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관장 감사말 등이 이어졌다. 1936년 7월 9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태어난 헌트리 목사는 1965년 9월 아내, 딸과 함께 한국에 도착해 호남지역에서 주로 사역했다.

1980년에는 광주기독교병원 원목으로 재직하며 광주 상황을 글과 사진으로 해외 언론에 기고하며 세계에 알렸다. 4년 뒤 전두환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당한 그는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으며 지난 5월16일 공로를 인정받아 오월어머니집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는 제11회 오월어머니상 개인상을 받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